

이 자료는 7월 6일(목) 11:00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실제 말씀은 별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## 정례브리핑 모두 말씀

2006. 7. 6(목)

1. 북한 미사일 관련 금융시장 동향 / 1
2. 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/ 7
3.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/ 13
4. 국고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/ 15
5. 한미 FTA 금융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2차 협상 일정 / 19

재정경제부

1

### 북한 미사일 관련 금융시장 동향

- 어제(06.7.5일)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하였으나,
  -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심리가 안정되고 미사일 발사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은 어제 오후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음

- ① 주식시장은 미사일 발사소식으로 전일비 26p 급락하여 출발하였으나, 12시경에는 전일수준으로 회복했으며,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

	7.4일 종가	7.5일 개장	7.5일 12시	7.5일 마감	전일비
* 코스피	1,285.9	1260.7	1286.0	1279.8	Δ6.07p(-0.47%)
* 코스닥	585.8	571.4	581.4	575.9	Δ9.85p(-1.68%)

- 외국인은 현물을 210억원 순매도하였으나, 선물은 3,435억원 순매수하는 등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

- ②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는 큰 변화없는 흐름을 보였으나, 장 마감무렵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영향으로 소폭 하락

	7.4일 마감	7.5일 개장	7.5일 12시	7.5일 마감	전일비
*국채3년	4.89%	4.87	4.87	4.85	Δ4bp
*국채5년	5.00%	4.99	4.98	4.97	Δ3bp

③ 외환시장에서 원/달러 환율은 미사일 발사 소식 직후 전일비 4.1원 상승한 947.5원에 개장하였으나,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되찾으며 946원대에서 등락

\* 원/달러: (7.4일) 943.4 → (7.5 개장) 947.5 → (7.5 마감) 946.7

- 달러/엔 환율도 미사일 발사 소식 직후 엔화가 약세를 보이며 소폭 상승하였으나, 곧 전일 수준을 회복

\* 엔/달러: (7.4일) 114.6 → (7.5 9:30) 115.0 → (7.5 15:00) 114.7

④ 외평채 가산금리\*는 최근 국제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에 동반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,

-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특별한 영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사태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임

\* 가산금리 동행(14년물, bp): (05달) 74 →(06.6달) 82 →(7.4) 82 →(7.5) 84

□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으나,

○ 이는 북한 미사일 소식과 함께 美 경제지표의 호조에 따른 美 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

\* 다우지수: (7.3) 11,228 → (7.5) 11,151 (Δ76.2, Δ0.68%)

\* 나스닥지수: (7.3) 2,190.3 → (7.5) 2,153.3 (Δ37.2, Δ1.69%)

□ 오늘 아침의 주식시장, 채권시장, 외환시장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은 아니나 다소 불안하게 시작

(주식시장) 주가는 미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다소 하락한 상태로 출발하고 있음

(채권시장)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우리 국채금리도 소폭 상승하여 정상 거래중

(외환시장) 원달러 환율도 큰 변동 없이 소폭 상승

□ 그러나, 어제 오후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는 등 사태가 진행중이어서

○ 향후 사태추이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

□ 과거 북한문제, 국제정세 문제 발생시의 경험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에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

○ 다만, 미국·유엔 등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에 따라 금융시장에 불안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은 있음

○ 국가신용등급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있으나,

- 향후 사태의 진전상황에 따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

□ 정부는 어제 아침 즉시 금융정책협의회(재경부 차관, 금감위 부위원장, 한은 부총재 참석)를 개최하여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으며,

○ 재경부·금감위·한국은행은 「금융시장 동향 점검반」을 설치하여 관련사건의 추이와 시장상황을 예의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, 필요시 즉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음

**<참고> 과거 주요사건 발생시 금융시장반응과 정부대응**

**① 98.8.31일 대포동 1호 발사**

(시장동향) 큰 영향이 없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임

- 환율은 당일 14원 상승했으나 이틀후에는 정상적인 모습

	8.29	8.31	9.1	9.2	당일변동
<주가>	304.8	310.2	309.7	314.4	+5.4pt
<환율>	1336.0	1350.0	1355.0	1340.0	+14원

(대응조치) 시장동향이 안정되어 단순 모니터링에 그침

**② 01.9.12일 9.11테러 발생**

(시장동향) 당일 큰 폭의 추가하락( $\Delta 65p$ ,  $\Delta 12\%$ )을 보인후 다음날 상승세로 반전했으나, 세계경기 불투명으로 영향으로 약세를 지속

- 금리는 당일 13bp 하락했으며 향후 경제전망이 악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

	9.11	9.12	9.13	9.14	9.17	당일 변동
<주가>	540.6	475.6	499.3	489.3	468.7	$\Delta 64.9pt$
<금리>	5.18	5.05	4.99	4.92	4.97	$\Delta 13bp$
<환율>	1295.8	1286.1	1290.6	1296.3	1298.0	$\Delta 9.7원$

(대응조치) 9.12일 새벽 긴급대책회의 개최(경제장관 참석), 증권거래소 개장시간을 12시로 3시간 늦춤

- 9.18일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은행,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증시 지지기능 강화방안\* 등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

\* 금융기관 등 주식투자 제한 완화, 연기금 주식투자 조기집행 등 기관투자자의 증시 지지기능 강화 대책 등을 실시

**③ 03.3월 북한미사일 발사보도 및 이라크 전쟁 발발**

(시장동향) 3.10일 미사일 발사실험 보도에는 금융시장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

- 3.12일은 SK글로벌 영향으로 금리, 환율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, 3.18일 이후 이라크 전쟁 발발에 따른 경기 전망 불투명으로 금리는 하락하고, 환율은 정상수준으로 복귀

	3.7	3.10	3.11	3.12	3.13	3.14	3.17	3.18	3.19	3.20
<주가>	546.0	515.2	532.5	531.8	531.7	537.6	515.2	537.3	541.9	568.5
<금리>	4.62	4.65	4.69	5.20	5.24	5.08	5.10	5.00	4.86	4.82
<환율>	1241.0	1241.0	1229.9	1245.0	1245.6	1241.2	1247.5	1253.9	1256.8	1246.0

(대응조치) 3.17일 금정협을 개최하여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

- 3.20일 이라크 전쟁발발에 따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(반장: 재정부 차관)를 구성
- \* 경제분야 종합상황실, 금융대책반, 에너지대책반, 건설·항공대책반, 수출·원자재 대책반 등 4개 대책반 설치

**④ 05.2.10일 북한 핵무기 보유 발표**

(시장동향) 전일 큰 폭 상승했던 주가는 2.10일 핵무기 발표 소식 등으로 2.11일 2p 하락했으나, 다음날 다시 17p 상승하는 등 상승세 지속

- 금리는 북한 소식에 관계없이 미국 금리상승으로 큰 폭 상승했으나, 이후 매수세 락하는 모습을 보임
- 환율은 당일 7원 상승했으나, 다음날 8원 하락하면서 바로 정상수준으로 복귀

	2.7	2.11	2.12	2.13	2.14	당일 변동
<주가>	949.1	947.2	964.8	968.9	971.6	Δ2.0pt
<금리>	4.27	4.46	4.43	4.31	4.19	+19bp
<환율>	1026.2	1033.2	1025.1	1026.7	1026.1	+7원

(대응조치) 시장이 큰 변화가 없어 단순 모니터링 실시

**2 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**

- 다음으로,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
- 그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제 열린 확대당정회의를 비롯하여 설문조사,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, 연구기관장 간담회(6.28), 경제단체장 간담회(6.28), 경제정책조정회의(6.30) 등을 거쳤으며,

- 오늘 오후에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'경제민생점검 회의'에서 확정·발표될 예정임

- 어제 차관보가 하반기 운용방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드렸으므로, 오늘은 하반기 경제여건과 전망, 그리고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

**<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전망 >**

- ① 우리 경제는 연초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

○ 유가·환율 등 여건은 악화되었으나,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

-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온 내수경기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

○ 그 결과로, 금년 상반기중 5% 후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됨

② 금년 하반기에는 고유가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있겠으나, 세계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외여건의 변동성은 상반기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

○ 다만, 주요국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가격 조정가능성, 글로벌 불균형 문제 등이 세계경기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

③ 이러한 대외여건과 국내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, 금년도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대로 연간 5%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○ 내수는 민간소비,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며,

○ 수출도 OECD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

○ 다만,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전망이어서 보완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④ 고용은 1~5월 실적(취업자 32만명 증가) 등을 감안할 때, 당초 예상보다 개선폭이 다소 완만한 추세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며,

○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3% 이내에서 유지되는 등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○ 다만, 경상수지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(150억불)보다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⑤ 한편, 내년의 경우에는 대외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으나,

○ 내수와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

<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>

① 이러한 대내외 여건과 하반기 전망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되,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하겠음

② '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 구축'이라는 금년 연간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구조개혁에 보다 중점을 두겠으며,

○ 이를 위해, 다음의 4가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

① 우선,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꺾이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·통화 등 거시정책을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임

- 아울러,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설투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자사업(BTL, BTO 등)의 차질없는 시행, 기업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부문별 대책을 병행해 나가겠음

② 둘째로, 고용창출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인식 하에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

- 법인·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한편,

-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와 함께, 인적자원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,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

③ 셋째로,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대외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제고해 나가겠음

- 금융·외환·세제, 경쟁체계, 노사관계 등 경제시스템 전반을 선진화·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,

- 한·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과 함께 동북아 금융·물류허브 기반 확충,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가속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

④ 마지막으로, 취약부문 지원 확대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음

-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재래시장·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,

- 복지사각지대의 해소, EITC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,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,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

③ 한편, 어제 열린 확대 당정회의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,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음

-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

### 3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□ 지난 7.1일로 경제자유구역 출범 3주년을 맞이함

-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간 특구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출범
- **Global Standard**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, 경제 선진화를 촉진하고자 추진

□ 지난 3년을 돌아보면,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토대를 착실히 마련

- ① 외국 학교·병원 등 경제자유구역관련 제도기반 확보
- ② 인천, 부산·진해, 광양만 3개 지역의 선도사업을 착공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들어섬

#### <인천>

- 송도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본격 개발 중

- \* 컨벤션센터(05.3월), 국제학교(06.4월) Asia Trade Tower(06.6월) 착공
- \* NYP 병원, IBM 데이터 센터, 포스코 건설 등 입주 진행중
- \* 국내외 대학 R&D센터 유치를 위한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 추진중

- 청라·영종지구는 금융 등 국제업무, 항공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개발 및 외자유치 추진중

- \*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본격 운영(63만평, 06.3월)
- \* 영종 운북복합단지 개발사업자로 홍콩 Lippo그룹 선정(06.7월말 협약체결)
- \* 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자 국제공모 추진(06.7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)

## <부산·진해 및 광양만권>

- 중국 양산항 개장에 대응하여 부산항 신항을 조기 개장(06.1월, 컨부두 3선석, 배후부지 2.5만평)하고,
  - 신호·과학산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업 유치 중
  - 광양만권은 광양항 확장을 추진 중이며 (연말까지 컨부두 16선석, 배후부지 22만평 조성예정)
  - 울촌1산단 자유무역지역(10만평, '05.12월) 개발 추진
  - 화양 레저단지 2012년 여수 해양박람회와 연계하여 호텔, 골프장 등 선도사업 착공 추진
- ③ 외자유치는 개발 초기단계로 다소 미흡하지만, 외국 학교·병원, 주거·상업시설 등 국제도시 기반이 형성되면서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
-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비즈니스·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
- 규제완화, 지원체계 보완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
    - \*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중
  -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속적으로 추진
- ※ 오늘(7.6일) 신라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 국제세미나가 진행 중임
-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, 향후 경제자유구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

## 4

## 국고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

### <그동안의 노력>

- 정부는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,
- 재정운영의 효율화, 투명화 등 국고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음
- 먼저, 그동안의 가시화된 주요 성과로는,
- ① 정부는 재정자금의 안정적 확보, 장기투자자산 수요 충족 등을 위해 장기국채 시장을 육성중이며,
- 금년 1월, 최초의 20년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이래, 꾸준히 수요가 유입(평균응찰율 140% 상회)되고, 10년물과의 스프레드도 안정적으로 유지(25~30bp)되고 있음
- ②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도 금년 5월부터(500억원이상 PQ → 300억원이상) 시행하였으며,
- 복잡한 계약관련 예규 등을 통합(현행 82개 → 15개)하고 용어를 쉽게 고침으로써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(06.6)
- ③ 정부결산 심의결과가 예산심의에 Feedback되는 선진화된 결산체제도 정착되어 가고 있음
- 이를 위해, 정부는 예산심의 전에 정부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(6.9일) 한 바 있음
    - \* 결산 국회제출일: '03결산(8.6일) → '04결산(7.27일) → '05결산(6.9일)
- ④ 국유재산관리 강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임
- 현실에 기초한 국유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금년말 완료로 목표로 집중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,



- 06.6월까지 금년 목표 45만필지의 절반수준인 21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였음
- 아울러, 행정·보존재산(406만필지)도 관련 부처의 협조하에 금년부터 조사에 착수하였음(07년 완료 목표)

### <향후 과제>

□ 앞으로, 재정의 건전성·효율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임

① 첫째, 국가채무 및 국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

○ 이를 위해, 5년 단위의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예정임

\* 국가채무의 중장기 전망 및 상환 계획, 국가채무의 위험분석·대응 등

○ 국가채무 및 국채의 상환·환율 등의 위험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한 전문관리체계(DMO) 구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,

○ 국채시장의 저변 확충을 위해 물가연동국채\*, 개인 투자자를 위한 소액국채\*\* 도입방안도 검토할 예정임

\* 국채의 원금·표면금리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(물가변동위험을 상쇄)

\*\* 10만원, 100만원 등으로 발행단위를 축소한 새로운 국채상품(현재는 10억원만 발행)

○ 아울러, 국가채권 관리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(표창, 성과급 등)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자산 관리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임

② 둘째, 자산·부채 등 재정상황을 종합적이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, 재정운용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계획임

○ 먼저, 08년도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목표로 사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임

- 근거법인 『국가회계법』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달 종료(5.26~6.15일)되었으며, 동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

- 아울러, 하반기에는 전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(05년 12개부처)하고,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국가자산·부채의 實査도 착수할 계획임(07년까지)

○ 성과평가체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, 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Feedback 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

- 내년초 본격 운용을 목표로,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예산과 결산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재정통계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임

③ 마지막으로, 국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부를 증대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

○ 금년 중 2~3건의 신규 국유지 개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도심의 저이용 행정재산(우체국 등)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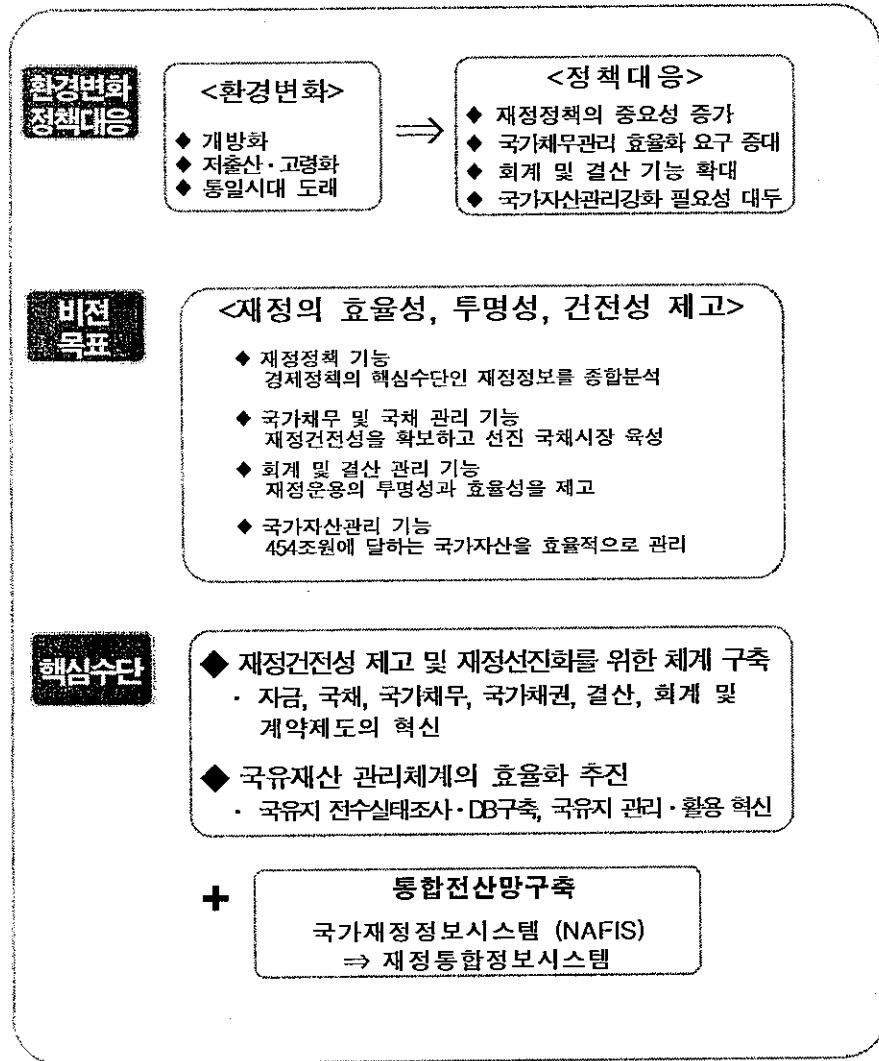
○ 아울러,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절차 간소화\*하고 임대체계를 탄력적으로 개선\*\*할 예정임

\* 경쟁입찰까지 입찰자가 1인 → 예정가격이상이면 유호로 인정 등(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)

\*\* 임대료를 세분화, 영구시설물 설치허용, 민간임대방식(전세금 등) 도입(국유재산법 개정)

□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재정체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,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재정의 역할을 원활히 뒷받침해 나갈 방침

<참고> 국고행정 선진화를 위한 비전



**5** 한미 FTA 금융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2차 협상 일정

- 한·미 FTA 2차 금융협상이 7.10~12일 3일동안 서울 (신라호텔)에서 개최될 계획임
  - 그간 정부는 FTA 금융협상을 우리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,
    - 금융감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해 왔음
  - 이번 한-미 FTA 금융협상이 체결되면
    - 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
    - ② 우리 금융기관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되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
    - ③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역량과 질도 크게 높아지고
    - ④ 미국에 진출한 우리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여 우리금융기관의 활발한 미국진출에 도움
- ⇒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동북아 금융허브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

□ 일례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능동적인 개방화, 구조조정 등을 통해

○ 지속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GDP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('90년대 5~6% 수준에서 '00년대에 7~8%로 상승)

○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도 크게 개선

\* 은행의 BIS비율 향상('99년 8% → '05년말 13%)

\* 당기순이익 변화('99→'05말, 조원)

은행 (△5.4→13.6), 보험 (△4.4→2.5), 증권 (0.9→2.6)

<국가별 금융산업의 GDP 비중 추이> (단위: %)

	'99년	'00년	'01년	'02년	'03년	'04년 <sup>1)</sup>
한 국	6.98	6.09	6.82	8.02	7.82	7.55
미 국	7.33	7.54	7.73	7.86	8.07	7.90
일 본	6.04	6.01	6.43	6.71	6.77	n.a

\* 자료: '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분석'(06.2 금감원)

□ 다만, 최근 FTA금융협상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

○ 국경간거래가 전면 허용되면 소비자보호 및 금융감독에 문제가 생기고

○ 신금융서비스가 개방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들어와 우리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것이며,

○ 투기자본이 보다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

⇒ 이에 대해 하나,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함

① 우선 “국경간 거래”에 대해 말씀드리면,

○ 그간 정부는 금융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

- 소비자 보호나 금융감독 등의 문제가 있는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방식을 견지

○ 이번 1차 협상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하여 한·미 양측은 극히 제한된 업종에 한해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였음

- 물론 어떤 금융 업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양국간 차이는 있으나, 국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금융부수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음

② 다음으로 “신금융서비스”는 미국에는 있으나,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함

○ 미국측은 1차협상에서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요구했으나, 대단히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허용여부를 검토해 줄것을 제시

① 현지법인 및 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가능

※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은 불가

②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이미 검증한 금융상품만 가능

- ③ 우리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
- ④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허가제로 운용할 수 있음

⇒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정이나, 협상단은 혹시 다른 게 있을까 하여 우리 입장은 유보한 채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하고 있음

※ 싱가포르('04.1월 발효), 호주('05.1월 발효)는 FTA체결 이후 “신금융서비스”가 도입된 예가 아직 없음

③ 마지막으로 FTA로 인해 외국 투기자본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

○ 오히려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 금융제도가 보다 선진화되고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역량이 높아지면

- 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전략적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보다 늘어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○ 만약 이러한 논리라면 그간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국가들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어야 하나,

- 칠레, 바레인 등 우리보다 금융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도 미국과의 FTA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음

\* 칠레 : '04.1월 발효, 바레인 : '04.9월 체결

### 【2차 협상 관련】

□ 이제 다음 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차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됨

○ 양측 대표단 규모는 우리측 200여명, 미측 75명 정도로 예상됨

□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양측 간의 이견 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둘 예정임

○ 상품분야와 관련해서는 관세감축 이행 기간 및 양허 기준세율 등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고,

○ 서비스/투자 분야의 경우 양측 유보안을 교환한 후 관심분야 및 입장을 파악하여 본격협상에 대비할 예정임

□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미 FTA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“제2차 협상대응방향”에 대해 내일(7일) 국회에 보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

○ 협상 중에도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2~3회 언론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으며,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7월말에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

□ 이번 협상에서도 정부는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협상에 임할 것인 바,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